

“더위야 가라” 장성 여름 축제 ‘인기몰이’ 예고

7-8일 무궁화 축제서 물총싸움

8-9일 썸머뮤지컬페스타 ‘워터밤’

맥주 파티 ‘썸머나잇피크닉’도

장성군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로 지역 주민들을 초대한다.

3일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7-8일 이틀간 광복 80주년 기념 ‘나라꽃 무궁화 장성대축제’가 장성 무궁화공원(장성읍 영천리 985)에서 열린다.

전국 4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는 산림청 전국단위 행사로, 전남을 대표해 장성군에서 개최된다.

축제는 세 곳에서 나눠 진행된다. 무궁화공원에선 ‘전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가 열려 무궁화가 지닌 다채로운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300개의 무궁화 묘목을 선착순으로 나눠주는 ‘무궁화 묘목 나눔행사’도 진행된다. 공원 한편에선 꼬마 관객들을 위한 무궁화 소품 만들기, 무궁화 페이스 페인팅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워터슬라이드, 물총 싸움 등 무더위를 잊게 해줄 물놀이는 무궁화공원 아래 경관폭포 방면에서 즐길 수 있다.

개막식과 축하공연은 7일 오후 6시 공원 아래 주차장 부지에서 장성지역 학생 뮤지컬 동아리 ‘하랑’과 가수 황민호, 지창민 등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을 본 후에는 공원 곳곳에 설치돼 있는 반디조명과 경관폭포 투광조명이 어우러진 야경을 만끽해도 좋다.

8일부터 9일까지 상무평화공원 축구장에서 열리는 ‘2025 어울림음악회 썸머뮤지컬페스타’도 기대를 모은다.



장성 무궁화 공원 전경.

〈장성군 제공〉

첫날은 미스트롯3 우승자 김용빈, 미스트롯 2 출신 강혜연,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한 한태현

등의 트로트 무대가 펼쳐진다. 다음날에는 ‘락 페스티벌’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다. ‘낭만고양이’, ‘오리 날다’ 등 히트곡을 보유한 ‘체리필터’와 ‘트랜스픽션’, ‘극동아시아 타이거즈’, ‘플링퀴츠’가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인다. 더위에 지친 관객들을 위해 ‘워터밤’(물대포)과 무료 물놀이장도 준비된다.

황룡강에서도 ‘시원한 이벤트’가 열린다. 22일부터 23일까지 황룡정원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썸머나잇피크닉’은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멀티 레이저쇼’와 ‘7080콘서트’, 1천명에게 맥주 1천잔을 1천원에 판매하는 ‘천천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22일 오후에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정평이 난 가수 소찬휘의 무대가 기다린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유난히 더운 올여름, 장성에서 시원하고 상쾌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풍성한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장성의 자랑인 제철과일과 맛집 음식도 함께 즐겨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보성 제암산휴양림·질환예방센터 ‘새단장’

내·외부 개보수·위케이션 수요 반영

숙박·치유·웰니스 체험 대폭 강화

보성군이 ‘제암산자연휴양림’과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3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리모델링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숙박·치유·체험 기능을 대폭 강화해 보성군을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리모델링 대상은 ▲제암산자연휴양림 내 ‘꽃향기의 집(전날대 2동, 영산호 3동)’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내 ‘원기 회복의 집(5동 8실)’이다.

보성군 웅치면에 있는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울창한 편백숲과 맑은 계곡, 드넓은 야영장과 산책로를 갖춘 산림휴양지로, 매년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보성의 핵심 관광명소다.

총 26동 47실, 야영데크 50면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 관광객과 단체 방문객 모두에게 적합한 휴식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꽃향기의 집’ 숙소 내·외부는 전면 개보수를 마치고 재개장했다. 냉난방 설비부터 조명, 주방기기 등 주요 시설이 최신 사양으로 교체됐으며 외관 조명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숙박 환경이 조성됐다.



▲리모델링을 마친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제암산자연휴양림 1층에 마련된 업무·회의가 가능한 위케이션 공간 ‘공간·휴’ 모습. 〈보성군 제공〉

특히 ‘제암휴양관’은 교육, 업무 및 네트워킹 공간으로 탈바꿈해 위케이션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복합형 산림 서비스 공간으로 거듭났다.

전국 유일의 전남권역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인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도 시설 개선을 마치고 재개장했다.

해당 센터는 지구온난화, 산림염화, 식생활 변화 등 다양한 환경 요인에 따른 환경성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건립된 전문기관으로 ▲향토·맥반석 찜질방 ▲산소방 ▲녹차탕 ▲치유명상실 ▲야외 족욕 시설 등 다양한 치유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리모델링한 ‘원기회복의 집’은 단기 체류형 건강 회복 프로그램 등이 가능한 친환경 숙소동으로, 내부 시설 전면 보수와 함께 생활 밀착형 치유 체험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했다.

성수기에는 이곳에서 가족 단위 프로그램, 웰니스 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언 기자



담양군, 성남시 호남향우회서 호우 피해 성금 기탁

호남 관심·애정 손길 지속

담양군은 “최근 성남시 호남향우회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8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정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기탁식에는 정철원 담양군수를 비롯해 조관훈 담양군의회 의원, 최대호 성남시 호남향우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남시 호남향우회는 2천5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물품 기탁, 2020년 전남 구례 수해 현장 봉사, 올해 4월 산청 산불 피해 기부 등 호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이어오고 있다.

최대호 성남시 호남향우회장은 “이번 기부가

빠른 피해 복구와 군민들의 일상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철원 군수는 “기부금은 피해 복구와 군민 생활 안정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기록적인 폭우로 지난 1일 기준 440여원이 넘는 피해를 입어 전남에서 가장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은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오는 9월30일까지 1억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흥군, 노인복지시설 방문 소비쿠폰 신청 추진

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

장흥군은 3일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방문, 찾아가는 ‘민생회복소비쿠폰’ 현장서비스를 추

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흥군 4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 10명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장흥군 복지 담당자들은 현장 접수와 신

청 안내를 병행해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장흥군 관계자는 “생활시설에 지내는 어르신들은 외부 출입과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워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기 쉽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신청 지원을 지속해 복지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곡성, 주민등록등·초본 무료 발급 시행

13개소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곡성군은 3일 “민원서비스 향상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관내 무인민원발급기(13대)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군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건당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관내 설치된 모든 무인민

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군청 민원실을 비롯해 읍·면행정복지센터 등 총 1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발급기 위치와 운영 시간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발급 시행을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영필 기자

“바다·계곡 복합 휴양”…순천시, 청량 여행지 ‘각광’

피톤치드 숲길·닭구이 등

미식·힐링·쉼 명소 다채

순천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위를 식히고 특별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휴식 여행을 제안했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금 순천은 여름보다 쿨하다’를 주제로 순천만의 매력을 담은 여름 관광지를 준비했다.

순천은 바다, 계곡, 정원이 어우러진 복합 휴양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자연속에서의 힐링은 물론 미식과 걷기 여행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여름철 순천의 매력을 더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내 ‘개울길 공장’은 자연 속에서 휴식과 물놀이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여름철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잔잔하게 흐르는 개울물에 발을 담그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도심 외곽 계속산 자락에 자리한 청소골은 계곡과 숲이 어우러진 천혜의 피서지로 인기가 맑고 차가운 물줄기와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은



맨발 산책과 물놀이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도심의 열기를 피해 자연 속 힐링을 원하는 여행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청소골 인근에 형성된 닭구이 거리에서는 순천8미 중 하나로 꼽히는 전통 숯불 닭구이를 맛 볼 수 있어 여름 여행의 즐거움을 한층 더 해준다.

순천만에 위치한 외온해변과 화포해변(사진) 역시 주목할 만한 명소다. 탁 트인 남해 바다와 드넓은 갯벌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낚파랑길 61·62코스를 걷다 보면, 해남이와 해돋이 등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걷기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은 자연 속 쉼과 도시의 감성이 어우러진 치유도시”라며 “순천만의 특별한 자연 경관 속에서 시원한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농특산물 쇼핑몰 ‘화순팍’ 매출 32억 돌파

민선 8기 공약…3년 새 매출 73배 ↑

농특산물·가공식품 판매 입소문 ‘주효’

온라인 쇼핑몰 ‘화순팍’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누적 매출 32억원을 달성했다.

3일 화순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된 화순팍은 2021년 연 매출 5천만원에서 2024년 36억7천만원으로 약 73배 성장했다.

화순팍의 상반기 주요 매출 요인으로는 ▲입점 상품의 다변화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가 꼽힌다.

특히 군 대표 과일인 복숭아를 비롯해 다양한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생활용품까지 판매하며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얻은 점이 주효했다. 이

를 통해 소비자 편의성이 강화되고 공공 플랫폼 활용도도 크게 높아졌다.

또한 인플루언서 협업, SNS 바이럴 마케팅, 우체국쇼핑 연계 확대, 화순 불꽃축제와 복숭아 직거래장터 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프로모션 활동도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반기에는 화순팍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B2B2C(기업-소비자-플랫폼) 융합 모델로 전면 교체된다. 양방향 유통 플랫폼이 공공 쇼핑몰에 구현되는 첫 사례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화순사랑상품권 간편 결제 ▲화순팍 e-선물카드 발행 ▲인플루언서 연계 공동구매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화순=이병철 기자